

영광교육청, 영어교육 전담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관내 영어회화전문강사·영어 원어민보조교사 대상

원어민보조교사 전문성 기초발제·주제 토론 중심

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호)은 영광 관내 영어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전담인력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

20여 명의 한국인과 원어민 영어교사 및 강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워크숍은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5차례 운영되며, 원어민보조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기초발제와 주제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환경과 문화다양성, 정신건강 등 원어민보조교사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특강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영어교육 전담인력들의 수업역량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수업나눔을 통해 협력수업과 회화수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활동을 공유하고, 영광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영어교사 및 강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뒤, 이 결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영어수업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영어교사는 “그동안 영

이교육 전담인력들이 모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동료의식도 생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특히, 수업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앞으로 이어질 워크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호 교육장은 “영어과 교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표현력 신장과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 이번 워크숍에서 영어 수업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영어 교사들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광주시교육청, 전대사대부중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 위한 위로·감동 주는 음악선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전대사대부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를 신청한 15개

교 중 다섯 번째 차례인 전대사대부중을 대상으로 전남대 내 5·18민주공원에서 진행됐다.

전대사대부중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남대를 출입하는 학생 및 주변을 거니는 시민들

도 함께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다.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학교현장을 찾아가 아름다운 음악공연으로 학생·교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9월28일 광주선명학교를 시작으로 하반기 문화예술기획사업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공연그룹 앙상블 아르코가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클래식, 국악,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며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음악적 감성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과서와 연계된 다양한 음악 중 학교별로 1곡씩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학교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주목할 만하다.

공연시간은 등교시간, 점심시간, 참체시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교과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야외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인호기자

고흥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맞춤형 연수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 회복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16일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원)장 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는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초빙강사인 전라남도교육청 백도현 장학관은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절차 및 적

용 방법을 소개하고, 관계회복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등을 안내해 공감을 얻었다.

연수에 참가한 한 학교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취지와 관계회복중심의 사안 처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무안교육청, ‘온종일 독서·토론·글쓰기 캠프’

무안행복중 1학년 대상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16일 무안행복중 1학년을 대상으로 진정한 나를 찾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온종일 독서·토론·글쓰기 캠프를 운영하였다.

무안교육지원청 찾아가는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무안군청의 지원을 받아 무안행복중 1학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다양한 토론 기법을 활용하여 도서 관련 토론 및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 학급당 6교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중학생 대상 지정 도서인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와 연계하여, 1~2교시에는 친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번개토론, 신호등토론, 하브루



타, PMI 토론을 진행하였고, 3~4교시에는 메모리 카드게임, 회전목마 토론, 토론신문 만들기, 5~6교시에는 세계전래놀이, 나무탑쌓기, 고민 비행기 날리기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프는 무안군청과 무안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 관계를 통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전남교육청, 인권-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 강화

현장지원단 연찬회 갖고 전문성 제고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전문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올 들어 인권보호팀에

양성평등교육 전문가를 선임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남 청소년 인권신장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인권-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에 역량을 갖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16

일과 20일 두 차례 인권-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평소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현장 전문가 등 2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며, 코로나19상황의 지속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16일은 집합연수, 20일은 온라인 연수 형태로 진행된다. 김정환기자

